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1.11(금) ~ 2022.11.17(목)

제공일시 2022 11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1.11(금) ~ 2022.11.17(목)

제공일시 2022.11.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금융당국, 그린워싱 조사 시작

- 유럽의 3대 주요 금융규제기관인 유럽감독당국(ESA)는 은행, 보험,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그린워싱 리스크와 관행에 관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 증거를 수집한다고 밝혔음
- ESA에는 유럽은행청(EBA), 유럽보험연금청(EIOPA),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포함됨
- 이번 작업은 유럽위원회가 올해 초 그린워싱 및 그 리스크에 관한 감독에 대해 ESA에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반해 그린워싱 리스크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금융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규제당국은 EU 자체의 SFDR프레임워크, 미국 SEC의 최근 제품라벨 공개규칙, 호주의 그린워싱방지 가이드,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ESG펀드에 관한 정보공개 요건 등 그린워싱 규제사례들을 참고할 방침이며 최종보고서는 1년 후 제출될 예정임

(ESG Today, 2022.11.15) Mark Segal 기자

2. EFRAG,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승인

- 유럽 EFRAG(재무보고자문그룹)은 16일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라 기업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영향, 기회 및 위험에 대해 보고하는 규칙과 요건을 정한 ESRS(기업지속가능성보고 표준)의 최종판을 승인했음
- CSRD는 지난주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이 지침은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에 ESRS 기준으로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 CSRD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수를 현재 약 1만 2000개에서 5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함
- 적용은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시작하고,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도 포함하여 직원 수 250명 이상 혹은 매출액 4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이 포함되며 2026년에는 중소기업도 대상군이 됨

(ESG Today, 2022.11.16) Mark Segal 기자

(원본)

3. 프랑스·스페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5년 앞당겨 '2035년 목표'

- 프랑스와 스페인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시기를 204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앞당겼음
-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서 '무공해차량선언(ZEVD · Zero Emission Vehicles Declaration)'에 새로 가입하면서, 친환경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음
- ZEVD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합의됐으며,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 판매를 목표로 함
- 선진국의 경우 2035년 친환경 차량 판매 100%가 목표임 영국 정부는 델타 일렉트로닉,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 자동차 부품회사 발레오 등 기업들도 ZEVD에 신규로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ZEVD 가입 국가와 기업 수는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214곳으로 늘었음

(아시아경제, 2022.11.17) 박병희 기자

1. 바이든, 연방정부 공급업체 배출량 공개 및 기후목표 설정토록 규칙 발표

-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공급업체들이 배출량 및 기후관련 재무리스크 데이터를 공개하고, 과학에 기초한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연방공급자 기후위험 및 탄력성 규칙 (Federal Supplier Climate Risks and Resilience Rules)을 발표했다
- 이 규칙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지속가능성 플랜'의 일부로서, 2050년까지 미 연방정부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이니셔티브를 설명함 미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최대 조달부서이며, 지난해 구매액이 6300억달러에 달함
- 연간 75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연방 공급업체는 스코프1,2 배출량을 보고하고, 연간 계약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면 스코프3 배출량을 공개해야 함
- 계약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면 과학에 기초한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함

(ESG Today, 2022.11.11) Mark Segal 기자

2. 메탄 감축 본격화하나, 바이든 200억달러 배정

- 바이든 정부가 업데이트된 미국 메탄 배출량 감축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전역의 메탄 배출량 감소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설명했음
- 이번 조치에는 석유와 가스정 폐쇄, 산업장비 개선, 폐탄광 매립 등이 2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투자가 포함되었음
- 미국과 EU는 지난해 COP26에서 글로벌메탄공약을 발표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40%의 세계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공약에 130개국 이상이 서명했음
- 미 정부는 메탄 배출의 주요 원천이 수만개의 유정과 가스정을 봉쇄하고, '초당적 기반시설법'을 통해 15년 동안 버려진 탄광 재생을 위해 110억달러 이상을 배정하며, 농업분야에 '기후 스마트' 상품 시장을 확대했음

(ESG Today, 2022.11.14) Mark Segal 기자

(미국 원본)

3. [속보] 美 의회 자문기구, 對中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 지위 박탈 권고

-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중국에 대한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이 1999년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으나,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미국 정부가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할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 이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향후 90일 동안 이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위원회는 또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WSJ이 지적했다

(글로벌이코노믹, 2022.11.16) 국기연 기자

1. 미국 FDA “인공 배양 닭고기 먹어도 안전하다”

-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업체가 닭의 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 만든 고기에 대해 인간이 섭취해도 좋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음
- FDA가 배양육의 안전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임 육류 제품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농무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배양육이 미국 식료품점 진열대에 올라갈 날이 머지않았음
-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FDA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스타트업 ‘업사이드 식품’이 생산한 배양육을 인간이 섭취해도 좋은지를 심사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 FDA의 로버트 칼리프 국장과 수전 메인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 국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배양한 동물 세포로 만들어진 식품에 대한 시판 전 검토를 처음 완료했다”면서 “세계는 식품 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FDA는 식량 공급 혁신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음

(경향신문, 2022.11.17) 김재중 기자
(CNBC, 2022.11.17) Emma Newburger 기자

2. EU, COP27서 ‘손실과 피해 보상’ 행동에 나서나

- 프랑스 티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16일 COP27 정상회담에서 “EU와 네 개의 회원국이 아프리카의 기후 적응을 위해 10억유로 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이며 다른 국가들도 가입할 수 있음 티머만스 부위원장은 또한 “EU는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해 6000만유로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관한 협상을 위해 오늘 아이디어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 UN은 14일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 결의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음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부유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음
- 이후 선진국들은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식수 공급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아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에 이 논의가 COP27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졌음

(Reuters, 2022.11.17) Sharm El-sheikh 기자
(노컷뉴스, 2022.11.16) 이정주 기자

3. 미국, 인도네시아 탄소 포집, 운송 투자 공개

-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와 식량 안보 등의 분야에 걸쳐 인도네시아에 대한 많은 투자를 발표했음
- 이에는 엑손모빌과 국영에너지 회사인 페르타미나가 탄소 포획에 관한 25억달러의 합의도 포함됐으며, 인도네시아 내 탄소포집 및 격리거점 개발이 더욱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음
- 특히 페르타미나의 유전과 가스전에서 10억톤의 잠재적 탄소저장능력이 발견돼, 향후 16년간 인도네시아 배출량을 영구저장할 수 있어, 2060 인도네시아 넷제로 달성을 도울 수 있다고 함
- 바이든은 G20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투자사실을 발표하며 ‘중요한 파트너’로 묘사했으며,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5개주에서 교통 인프라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6억9800만달러 규모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을 출범키로 합의했음

(Reuters, 2022.11.14) Nusa Dua 기자

1. 반도체 친환경연합 에코얼라이언스, 재생에너지 로드맵 발표

- SK하이닉스가 주도하며 44개의 회원사를 둔 반도체 기업 친환경 연합 ‘에코얼라이언스’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고 11일 공동 선언했음
- 공동 선언에는 SK스페셜티, SKC,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원익머트리얼즈, 원익IPS, PNS로지스 등 에코얼라이언스 17개 회원사가 참여했음
- 에코얼라이언스는 선언문을 통해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에코얼라이언스는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각 회원사에 맞는 실천 방안을 이행한다는 계획임

(연합뉴스, 2022.11.11) 김아람 기자

2. SK, 사외이사 후보군 만들고 만남 정례화... 이사회 힘 싣는다

- SK그룹이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이사회 업무를 지원하는 포털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사외이사 간 만남(Director's Summit)을 정례화한다는 밝혔음
- 이에는 각 관계사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독립적 경영을 할 수 있어야 기업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음
- SK그룹은 연령과 성별 다양성을 기반으로 재무, 글로벌, ESG 등에 관한 전문성이 반영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했으며, 사외이사들이 국내외산업동향, 글로벌이사회 운영모델을 연구하여 이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렉터스 서밋은도입했음
- 내년부터 관계사에 후보군 리스트를 참고해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시스템도 개발했으며, 내년부터 SK와 SKC 이사회에 시범도입한 뒤 다른 관계사로 적용할 예정임

(연합뉴스, 2022.11.13) 김보경 기자

(매일경제, 2022.11.13) 이윤재 기자

(머니투데이, 2022.11.13) 김도현 기자

3. 아람코 “韓·日에 블루수소 수출”...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롯데케미칼 등과 협력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한국, 일본 등에 블루수소를 공급하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음
-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마드 알 코웨이터 아람코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4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블루수소 수출과 관련해 많은 주체와 협상하고 있으며, 가장 진전된 논의를 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밝혔음
- 알코웨이터 CTO는 인터뷰에서 블루수소 수출과 관련해 한국 기업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음
- 아람코는 석유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블루수소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롯데케미칼 등과 블루수소 생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로,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블루수소를 5년 안에 한국 등에 수출할 계획임

(한국경제, 2022.11.15) 허세민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1.11(금) ~ 2022.11.17(목)

제공일시 2022.11.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유럽증권시장청(ESMA), 펀드 명칭에 ESG·지속가능성 붙이려면 최소 40% 지속가능 펀드에 투자 의무

[\(Responsible Investor, 2022.11.21\)](#)

- EU금융규제기관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ESG’ 또는 ‘지속가능성’ 용어를 펀드 명칭에 포함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함
- 펀드 상품에 ‘ESG’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80% 이상을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제8항에 따른 환경(E)이나 사회(S) 부문에 투자해야 함. ‘지속가능성’이나 관련 용어의 경우에는 SFDR이 정의한 지속가능한 투자 자산을 50-80% 범위 내 구성해야 함. 즉, 펀드 상품명이 ESG 펀드, 지속가능한 펀드라면 관련 투자에 일정 비중을 투자해야 함
- ESMA 회장인 베레나 로스는 “이번 초안의 목적은 그린워싱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당국(NCA,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이나 자산 관리자들에게 실제 투자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ESG 관련 펀드 명칭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이번 초안은 정량적 기준을 더욱 강화함. 펀드 명칭에 ESG 혹은 지속가능성 용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최소 투자 비율’을 도입함. 투자 비율에 대한 세부적인 정량 기준치를 결정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공개 협의를 실시하고, 금융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임
- ESMA는 ▲ESG 관련 용어 사용 시, 투자 비중 임계값(80%) ▲지속가능성 혹은 관련 용어 사용 시, 투자 비중 추가 임계값(50-80%) ▲ESG/지속가능성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투자에 대한 최소 기준 적용 ▲임팩트투자 등 특정 펀드 유형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이번 초안은 금융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흐름 속에서 나온. 지난 몇 년 간 ESG·지속가능성 투자에 관한 수요가 급증했고, 자산 관리자들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펀드 명칭에 ESG 혹은 지속가능성 용어를 붙여옴. 실제 ESG 투자와 관련 없지만 용어 사용으로 인해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어려움을 겪음
- ESMA는 “ESG·지속가능성은 펀드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라며 “앞으로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지속가능성 특성 또는 목표에 대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펀드의 투자 목표와 정책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 ESG투데이는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중심으로 ‘ESG’, ‘친환경’ 또는 ‘지속가능성’ 용어로 판매되는 투자 상품 및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그린워싱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다”면서도 “투자자에게 실제 ESG 관련 속성, 방법론 및 기준을 전달하는 명확한 규칙이 없다”고 밝힘
- ESMA는 공개협의 이후, 2023년 2분기 또는 3분기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임.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투자자들은 ESG·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SFDR 8항에 따라 공시된 펀드들은 ‘지속가능한’ 혹은 관련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모닝스타는 SFDR 제8항에 따라 공시된 펀드의 18%만이 ESMA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음
- ESMA는 보고서 부록에 펀드 명칭의 임계점을 평가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사례를 제시함. ‘기후 변화 솔루션 펀드’는 지속 가능한 운송, 지속 가능한 건설, 지속 가능한 식품 및 물 등 기후 변화 솔루션

션을 주제로 한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후변화는 환경(E)과 관련된 항목으로 80% 이상 E 혹은 S 부문에 투자해야 함. 실제 이 펀드는 90% 투자했으며, 자산의 최소 25%를 지속가능한 투자에 투자할 것을 약속함. ESMA는 이 펀드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음을 밝힘